

교사가 주인공 되는 수업혁신

전북 수업나눔 박람회, 오늘부터 내달 1일까지… 교원 154개팀 수업사례 시연

교사가 주인공이 되는 수업혁신 축제가 31일 막이 오른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월 31일 ~11월 1일 이틀간 창조나래 시청각실 및 전주우림중학교에서 '2025 전북 수업나눔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함께, 수업 빼지마'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교사들이 주도적으로 수업혁신 문화를 만들어가는 학습 수업사례 나눔으로, 교사의 미래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올해는 △개념기반 탐구수업 △AI ·

디지털 활용 △생태·지역 연계 △학력 신장 △교사 성장 등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11월 1일 전주우림중에서 진행되는 '수업나눔의 날'에는 도내 교원 154팀이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실천한 다양한 혁신 사례를 직접 시연한다.

또한 수석교사 컨설팅, 사제동행 공개수업, 교사 연구회 및 학생 동아리 부스 운영 등을 통해 교사와 학생, 지역이 함께 배우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성장·발전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

인다.

한편 개막식은 31일 오후 3시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열리며, 교사 선언과 축하공연, 교사 성장 이야기, 교사정책 대담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박람회는 교사들이 서로의 수업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교사 성장의 축제'이다.

학생 중심 미래교육을 실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전북교육 혁신이 교실에서부터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30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학교 선수단 해단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학교 선수단 해단식

용접·요리·자동차 차체수리 등 15개 직종, 33명 입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30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학교 선수단 해단식'을 열고 입상 학생과 지도교사에게 메달과 표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해단식은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생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직업계고 현장의 숙련기술 교육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9월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도내 13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79명이 참가해 금 3·은 3·동 4·우수 5·장려 18 등의 성과를 거뒀다.

주요 입상 분야는 △용접 △요리 △

지방공무원 노사관계 연수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도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직원들의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 및 건전한 직업관 함양에 나섰다.

특히 전주공업고 하상표 교사가 전 기제어 분야에서의 지도성과를 인정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상(모범지도자상)을 받았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전북 직업계고 학생들이 전국 무대에서

보여준 실력은 우리 기술교육의 경쟁력을 보여준 성과"라며 "앞으로도

숙련기술 교육 강화와 전공심화등

아리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기술인재

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올 수능시험 안정적 시행 총력

전북교육청, 내달 4~12일 수능 담당자 집중연수기간 운영

피견감독관·방송담당자 등 대상… 12일 최종 점검 돌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담당자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11월 4~12일을 수능 담당자 집중 연수 기간으로 정하고, 업무 담당자별 연수를 개催한다.

먼저 4일에는 본청 피견감독관 연수를 진행한다. 총 66명의 피견감독관을 대상으로 △시험장 점검 △감독관 예비소집 관리 △수능 당일 시험 운영 감독 등 핵심 역할 및 임무 수행 지침을 전달한다.

6일 오전에는 방송담당자 전문 연수

가 열린다. 시험장학교 교감, 방송담당자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총 210명이 참석해 △방송시설 준비 및 점검 방법 △티종 및 듣기평가 시행 지침 △돌발 상황 대처 요령 등 수능 방송 운영 매뉴얼을 숙지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업무처리지침 전달 회의를 갖고 △시험장 설치 및 운영의 각종 준수사항 △감독관 유의사항 △부정행위 방지 대책 세부 내용 △상황별 시나리오 등 '2026학년도 수능 업무처리지침'을 상세히 안내한다.

이 회의에는 시험장학교 교감 및 교무

장수교육지원청, 지역 출신

명사 초청 제3차 진로특강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은 30일, 전북유니티고등학교에서 '지역 출신 명사 초청 진로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에는 위대한상상(요기요) 권효준 인재문화본부장이 명사로 참여해 학생들에게 진로 설계와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재의 자세에 대해 강연했다.

이번 행사는 장수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장수인 만나다' 진로특강의 세 번째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지역의 선배를 통해 꿈과 진로에 대한 동기를 얻고 미래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권효준 본부장은 위대한상상(요기요)에서 인재문화와 조직문화를 이끌고 있는 전문가로, 자신의 학창 시절과 성장 과정, 그리고 글로벌 플랫폼 산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도전과 성장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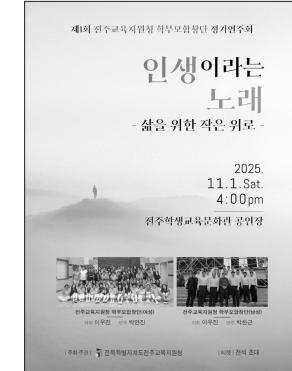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삶을 위한 작은 위로'

전주학부모합창단, 내일 정기연주회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채선영)은 11월 1일 오후 4시 전주학생문화관에서 전주 학부모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인생이라는 노래 - 삶을 위한 작은 위로'를 주제로, 음악을 통해 인생의 전세대에 걸친 삶의 여정을 돌아보고 세대와 세대를 잇는 따뜻한 울림의 정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주회는 '유년시절', '청춘', '우리, 지금', '인생'의 네 개의 테마로 구성되었으며, 각 무대는 인생의 다양한 순간을 음악으로 표현해 교육가족과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여성합창단(회장 예경아, 단원 59명)과 남성합창단(회장 도내현, 단원 27명)이 함께 무대에 올라 '기치니 아베마리아', '노을', '바람의 노래', '백만송이 장미', 'Coro di Schiavi Ebrei', 'Gaudeamus(기뻐하라)' 등 클래식과 대중이 어우러진 곡들을 풍성한 하모니로 들려준다.

이번 공연은 지휘자 이우진, 반주자 박찬근·박연진이 함께하며 전문성과 예술성을 더했다. 공연에는 학부모, 학생, 시민 등 약 500여 명이 함께해 세대가 어우러지는 따뜻한 공감과 소통의 무대를 나눌 예정이다.

채선영 교육장은 "음악은 세대와 문화를 넘어 마음을 잇는 언어이며

며, 학창 속에는 존중과 협력, 나눔의 가치가 담겨 있다"며 "전주 학부모합창단이 지역사회의 문화적 자긍심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주학부모합창단은 2007년 '전주온고을어머니합창단'으로 창단해 2023년 현재의 명칭으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꾸준한 연습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으며, 2023년 창단된 남성합창단 또한 음악을 통한 나눔과 희망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이번 정기연주회가 학부모와 학생,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감의 자리가 되어 전주시민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남기길 기대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한안나 교수, 식품영양
과학회 신진연구자상 수상받아



전북대학교 한안나 교수(생활
대 식품영양학
과)가 식품학 및
영양학 분야의
연구성과를 인정
받아 신진과학자
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29일 베스코 컨벤션
홀에서 열린 '2025 한국식품영양과학
회(KFN) 국제 심포지엄 및 연례 학술
대회'에서 열렸다.

KFN은 매년 연구력이 뛰어난 국내
신진과학자를 선정·시상하고 있다.
이번 수상으로 한 교수는 학문적 성과
와 연구 임제력을 인정받았다.

한 교수는 한국 전통 발효장류(K-Jang)의 분자 대사 기전 기반 기능성
연구와 장내 미생물 및 대사체 분석을
통한 건강 효과 규명 연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더불어, 국가 영양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노년층 영양 및 만성질환 역학
연구까지 폭넓게 수행하고 있다.

한안나 교수는 "이번 수상은 식품
영양학과 분자대사영양학 연구실 학생
들과 동료 연구자들의 노력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리
전통 발효식품의 과학적 가치가 국제
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에너지 기술공유대학
학술세미나 온·오프라인 진행

전주대학교는 30일 군산 새만금에너지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에서 에너지 기술공유대학(ETU) 학술세미나 및 창업특강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호남권 에너지기술공
유대학(ETU),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RE100에너지솔루션얼리언스, 전북테
크노파크가 공동 주최했으며,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약 140명의 호남권 산
학연관 전문가 및 대학원생들이 참여
해 성황을 이뤘다.

오전 세션에서는 에너지기술품
우대학(ETU)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RE100에너지솔루션얼리언스, 전북테
크노파크가 공동 주최했으며,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약 140명의 호남권 산
학연관 전문가 및 대학원생들이 참여
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세미나는 호남권 에너지기술공
유대학(ETU),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RE100에너지솔루션얼리언스, 전북테
크노파크가 공동 주최했으며,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약 140명의 호남권 산
학연관 전문가 및 대학원생들이 참여
해 성황을 이뤘다.

조회립 학회장은 "이번 한·일 공동
학술대회는 아시아적 관점에서 본
아프리카학의 발전'을 주제로 일본아
프리카학회(JAAS)와의 특별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학술대회는 '아시아적 관점에서 본
아프리카학의 발전'을 주제로 일본아

아시아적 관점에서 본 아프리카학 지평 확장

오늘부터 이틀간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서

'2025 KAAS 인터내셔널 콘퍼런스' 개최

전북대학교에서 한·일 공동 아프리
카학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아프리카학회(KAAS, 회장 조화
립)는 31일과 11월 1일 양일 간 전북
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5 KAAS
International Conferenc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아시아적 관점에서 본
아프리카학의 발전'을 주제로 일본아
프리카학회(JAAS)와의 특별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과 일본을 대표
하는 아프리카학 석학 22명이 발표자로
참여해 아시아 내 아프리카학 연구
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공동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특히, 일본 아프리카학자들이 주도하
는 TICAD(도쿄 아프리카 개발 국제
회의,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세션과 한국 연
구진이 참여하는 'Korean · African
Foundation', 순창발효관광재단이 공동
후원한다.

조회립 학회장은 "이번 한·일 공동
학술대회는 아시아의 시각에서 아프
리카를 바라보는 새로운 학문적 패러
다임"이라며 "국내외 연구자와 시민들
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아프리카학 연
구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
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의료 AI' 가능성·한계 논의

적용형 AI연구실, 감염병 진단·치료 AI 활용 세미나

김연병의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AI
기술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한계를
논의하는 세미나가 11월 3일 전북대
인문사회관 208호에서 열린다.

30일 전북대에 따르면 조제혁 교수
팀이 이끄는 적용형AI 연구실에서 마련
한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현
장에서 전문성과 소신 있는 분석으로
국민적 신뢰를 받아온 감염병 권위자

이재갑 교수(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
염내과)가 주제 발표자로 나서 관심을
끈다.

최근 인공지능(AI)의 분야별 특화 활
용이 전 산업과 학문에서 핵심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도메인 특화 AI 활용 전략을 모색
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조제혁 교수
팀(소프트웨어공학과)이 한림대 이재
갑 교수 등 국내 권위자들과 함께 감
염병 대응 AI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이날 세미나는 조제혁 교수 좌장
을 맡아 AI 모델의 신뢰성, 데이터 편
향, 윤리적 검